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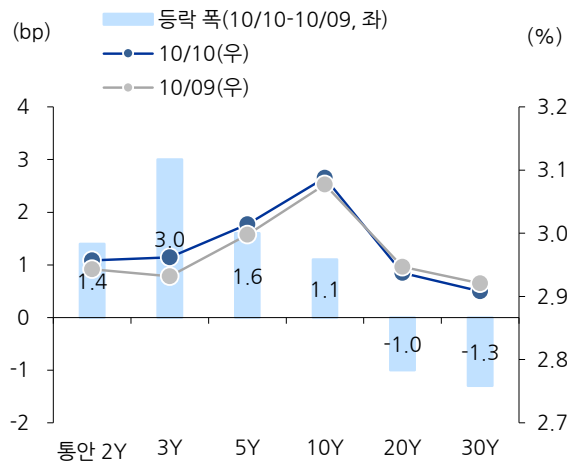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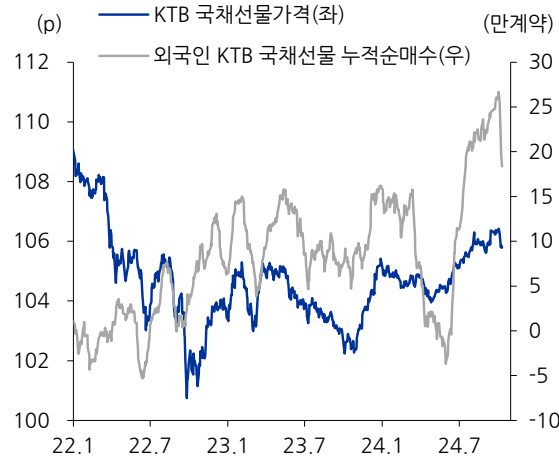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0/10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62%	3.0	15.1	-192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88%	1.1	9.6	-9.5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2.6	14.5	18.1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79	-8.0	-56.0	37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38	-7.0	-100.0	88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959%	-6.2	25.4	-29.1
	미국채 10년물	4.064%	-1.0	21.7	18.4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10.5	5.3	14.2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253%	-0.5	10.7	24.9
	호주국채 10년물	4.201%	3.5	27.0	24.6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대내외 재료 대기, 외국인 수급 등 영향
- 연휴 중 WGBI 편입 소식 반영하며 강세 출발. 다만 금새 중단기물 중심 금리 반등. 외국인, 장 중 국채선물 매도에 나서며 채권 약세를 견인
- 미 9월 고용 충격에 이어 fomc 의사록까지 확인하며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된 여파. 미 CPI, 금통위 경계심도 지속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미 CPI는 전반적으로 예상치 상회한 반면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해 8/5일 이후 최대치 기록. 미국채 금리는 혼재된 지표 속 단기물 중심 하락
- 연준 측 반응도 엇갈림. 시카고 연은 총재, 12~18개월 추세상 물가는 급락한 점 강조. 애틀랜타 연은 총재, 물가 우려 내비치며 11월 동결 지지
- 금일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예정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한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0/10일	1D	1W	YTD
원/달러	1,350.20	0.0%	3.2%	4.8%
달러지수	102.88	-0.0%	0.9%	1.5%
달러/유로	1.093	-0.1%	-0.9%	-1.0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08	-0.1%	0.4%	-0.6%
엔/달러	148.57	-0.5%	1.1%	5.5%
달러/파운드	1.306	-0.1%	-0.5%	2.6%
헤알/달러	5.58	-0.2%	2.0%	15.0%
WTI 근월물(\$)	75.85	3.6%	2.9%	5.9%
금 현물(\$)	2,629.97	0.9%	-1.0%	27.5%
구리 3개월물(\$)	9,737.50	0.6%	-1.3%	13.8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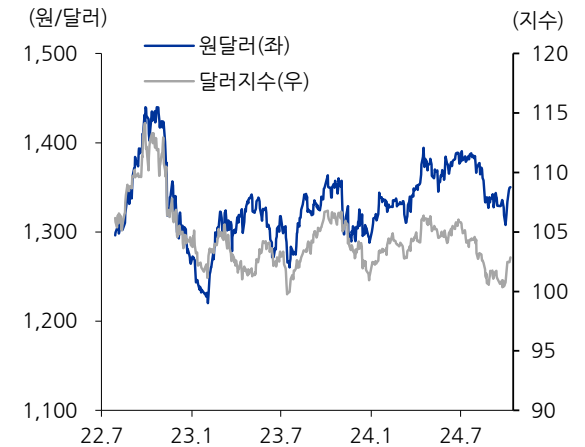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0.50원 상승한 1,350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55.20원 마감.
- 전일 한국의 WGBI 편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달러-원은 약보합 출발. 오전 중에는 하락권을 유지했지만 매파적이었던 FOMC 의사록 여파에 낙폭을 확대하지는 못함.
- 오후 들어 CPI 경계심 속 완만한 반등을 보이며 상승 전환 마감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미국 물가지표와 실업급여를 소화하면서 소폭 하락.
- 미국 9월 CPI 및 Core CPI는 각각 +2.4%(Y), +3.3%(Y) 상승해 시장 예상 상회. 심각하진 않지만 8월 대비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부정적이었음.
- 물가지표 발표 후 대부분 연준 인사들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. 다만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11월 동결에 대해 확실히 열려있다고 언급.
- 지난주 신규 실업급여는 25.8만 건으로 급등했으나, 허리케인 헬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.
- 금일 한국 금통위 예정.